

세화중 “제주4·3-여순 10·19 기억할 것”

교내 4·3 추모관 설치·운영 여순 의미 18m 리본도 제작

세화중학교(교장 송시태)는 제주 4·3 73주년을 맞아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다랑쉬 너머 부는 봄바람 평화로 있다”라는 주제로 교내 위치한 세화4·3성 앞에 추모관을 설치,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추모관은 제주4·3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평화와 인권에 관심을 높이고 여수에 주둔한 제14연대 병사들이 동족을 학살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4·3 진압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여순 10·19 해결에 도움을 주는 연대와 공유의 융합형 추모관이다.

학생자치회는 제주에서 여수까지의 거리 180km를 축소해 ‘잊지않고 기억하겠다’는 연대와 공유의 의미를 담은 18m 노란색 리본을 제작했다. 또 4·3의 영혼들이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민



간인 희생자들의 피를 담은 지름 120cm의 동백꽃을 제작해 설치했다.

추모관이 설치된 세화4·3성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세화중에서 ‘제주인의 정체성을 찾는 주제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과 함께 발굴한 장소다. 1949년 초 토벌대의 무력진압이 한창일 때 세화리 사람들에게 식량을 가지러 산에서 내려오는 무장대를 막기 위해 현재 세화중 운동장 남쪽에 쌓은 성이다.

배기준 학생자치회장은 “4·3평

화공원을 찾아가 추모식에 참여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추모관을 만들어 4·3 희생자들과 4·3으로 인해 발생한 여순 10·19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 주고 싶어 만들었다”면서 “정성들여 만든 만큼 지역사회의 주민이나 학생들도 많이 찾아와 주면 고맙겠다”라고 전했다.

송시태 교장은 “다랑쉬 너머 부는 봄바람’이 여순사건까지 평화와 인권의 숨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전은자씨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서귀포시 이증섭미술관 전은자(사진)씨가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을 수상했다. 인천광역시 1일 이같은 내용으로 인천시립박물관 초대관장이자 국내 미술평론가 1세대인 석남 이경성 선생(1919-2009)의 업적을 기리는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은 이경성 선생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 시작된 석남 미술상(1981-2006)과 석남 미술이론상(2006-2008)의 뒤를 이어 선생 타계 후 학생들의 자발적인 발의로 제정됐다.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위원회는 한국 미술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 평론가, 미술행평가 등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전은자씨는 제주 지역의 미술가를 연구하는 한편 이증섭 연구를 지속해 온 점이 인정됐다. 특히 일본인인 이증섭의 아내와의 소통을 위해 통역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이증섭미술관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운영위원회 측은 “이증섭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이증섭 연구에 최선을 다해왔고 유족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증섭의 작품 기증을 이끌어내는 등 이증섭미술관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어르신 죽 나눔 실시 업무협약



제주순복음복지관(관장 조영숙)과 화북동주민센터(동장 강인규), 화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안애생), 본죽 제주삼화점(대표 김소라)은 지난날 30일 제주시 화북동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죽 나눔을 실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회복무요원 김민석씨 헌혈 은장 받아



제주지방방무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제주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석 사회복무요원이 꾸준한 헌혈 활동으로 1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은장과 포장을 수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민석씨는 지난해 3월 복무를 시작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헌혈 수급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월 1~2회씩 꾸준히 헌혈을 이어오고 있다.

등정



복지이음마루 개관식 참석·축사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2일 복지이음마루에서 열리는 ‘복지이음마루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2021년 부활절 연합 예배 참석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일 서귀포장로교회에서 열리는 ‘서귀포시 기독교 교회협의회 2021년 부활절연합예배’에 참석할 예정이다.



도련1동 4·3희생자 위령제 참석
◇안창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일 도련1동 4·3희생자 위령제에서 열리는 ‘도련1동 4·3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영령들을 기릴 예정이다.



해안사구 보전 모색 정책 토론회
◇권길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모색을 위한 정책 발굴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김희현 의원 필수노동자 응원 동참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사진)이 1일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사회 기능 유지에 위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면 노동을 지속해야 하는 이들을 말한다.

다음 캠페인 주자로 강원도의회 허소영 의원을 지목한 김희현 의원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두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민속보존회 제주시협의회 정기총회



민속보존회 제주시협의회는 지난날 26일 제주시 종합경기장 애항운동장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민속보존회 사업계획 등 향토 민속문화 개발과 보존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문명숙(사진·오라동) ▷부회장 부영자(조천읍), 김현숙(연동) ▷감사=오인희(도두동), 송영주(봉개동) ▷사무국장=이상화(아라동).

한편 민속보존회 제주시협의회는 2002년 2월 출범해 현재 26개의 민속보존회에 총 102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오태유 대표 적십자광무장 금장 수상

오태유 오성수산 대표는 지난달 31일 적십자사 회장실에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적십자광무장 금장을 받았다.

적십자광무장은 적십자사 임·위원으로서 인도주의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타의 모범이 되는 이에게 수여하는 대한적십자사 포장이다.

오태유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제주적십자사 부회장 임기를 수행하며 자원조성 및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했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적십자운동 활성화에 앞장서왔다.

또 오 대표는 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쏟음이 바른 캠페인’에 가입해 매월 정기적인 기부와 연말연시 이웃



돕기 성금을 통해 나눔경연을 실천하고 있다.

오 대표는 “적십자사는 소외된 이웃과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적십자사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생교육진흥원 미얀마 민주주의 응원

제주평생교육진흥원(원장 허정옥)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미얀마 민주주의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미얀마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에 불복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4·3의 아픔을 상징하는 동백꽃 피켓과 함께 자유, 선거, 민주주의를 뜻하는 세 손가락 경례로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응원했다.



허정옥 원장은 “4월이 제주와 미얀마 모두의 바람이 이뤄지는 아름답고 찬란한 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황금향대조품종(품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경신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대조품종 - 제라몬(레몬), 탐나는봉(한라봉), 사라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산화홍(붉은색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구, 팔사, 세미늘, 금갈,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중과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미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삭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거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이 발급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구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